

## 에스겔5장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에스겔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고 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장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게 하고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네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네게 경청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네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임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음이라.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네 마음으로 받고 네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

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나는 크고 요란한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본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잖습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라 심지어 창자까지 창자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완전히 소화하라 이런 얘기죠 말씀을 소화하라 깨달아서 소화해야만 되는 거죠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배탈이 납니다 몸이 아픕니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했죠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우리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전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칼로리를 소모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퍼내야 됩니다 그것을 퍼내야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이나 육적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어야 되고 소화해서 그 말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해야 됩니다 우유 같은 말씀 고기 같은 말씀 사과 같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육신 적인 것이 바이타민에 다 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영이 살아 있어야만 영양소를 먹죠 육신이 살아 있어야만 육신의 영양소를 먹는 것처럼 영이 거둬야만 되는 거죠 거둬나지 않았는데 거둬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고 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거둬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이 보고 먹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소화해서 완전히 섭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고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일꾼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절히 다 공부해야합니다 이단들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이단들입니다 성경전체를 다 먹어야만 되는 거죠 세상 학교 가서 첫 번부터 1과부터 공부를 안 하고 여기 했다 저기했다 선생이 한 구절 가지고 떠들고 그러면 뭘 공부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고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모르고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강의하지 않으면 진짜 사역자가 아닙니다 또 성경은 보기는 하되 이걸 먹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고 먹고 전하고 이게 일꾼이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예요 다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뿐 이죠 밖에 나가면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목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간에 똑 같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분은 그래요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앞에 다 목사도 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새끼를 낳아야 되죠 또 그다음에 먹으려면 좋은 말씀을 먹어야 되죠 좋은 말씀 요즘에 어떤 말씀이 옳다 그러면 아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보고 먹고 그다음에 전해야 되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주 귀한 자식이 태어나니까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거기다가 우유를 먹이는데 몇 일 된 우유 쉰 우유를 먹이겠습니까 절대 안되죠 절대 안되죠 가장 좋은 것만 먹입니다 가장 좋은 것만 먹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지고 빠지지 않은 성경 변하지 않은 성경 사탄이 손대지 않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될게 아닙니까 잘 못 들어가면 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참 이렇게 되야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하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물론 자랄 수도 없죠 이게 요즘에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별로 한 두 사람 택해서 했어요 안 들었습니다 지금 세대와 똑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똑 같습니다 그 때도 바벨론이요 지금도 바벨론이요 그 때는 느부갓네살 치하에 바벨론이요 지금은 저 로만 캐톨릭 큰 바벨

론 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면 이렇게 같습니까? 이것 보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 세상 사람이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지금 교회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깜짝 놀랍니다 어찌면 그렇게 같은지 그 때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3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런 경험을 했죠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먹으니 내 입에는 다나 먹고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명, 선지자도 좋고 요즘 크리스찬들도 좋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 받은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해 보잖아요 내가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휴 힘들지 않아요? 아니예요 내가 살려고 해요 내가 전할 때 생수가 내 속에서 올라올 때 내가 먼저 살아요 그렇지요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요. 일주일 내내 살아야되요 그래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것을 할 수 있는거예요 설교할 때 예화집 볼 필요 없어요 예화는 밖에 나가서 성령이 역사한 걸 얘기 해야지 그걸 해야지 남의 것 배긴 것 그걸 줄줄 말해야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예화가 나와요 예화집 볼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예화집 가지고 설명해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둬나지 않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더라 이것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터져 나올 때 그 때 팍박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뒤 따를 것을 말하죠 선지자들이 고난 받았습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고난받으니까 내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무거운 짐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빨리 토해 내는 게 낫다 얻어 맞더라도 이게 바로 그런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못 견딤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짐이라고 그래 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더라고 그럴 때 그걸 버든(Burden) 그랬습시다 버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주 큰 바윗 돌같은 것을 던져넣으십니다. 이거 빨리 전하라 풀어라 네가 그럼 네가 죽는다 또 불 같아요 불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 뜨거워요 빨리 던져야 되요 이걸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만 알죠

첫 번에 구원받고 은혜 받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너무나 은혜 받죠 은혜받습니다 다윗도 시편 19편 19절에 보면 그것들은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또 103절에 보면 또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달다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는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맛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병이 걸리면 몰라요 영적인 병에 걸리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감기만 와도 입맛이 푹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적으로 감기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흐려져 가지고 감기 걸리고 우리가 다른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찢뚫뚫 똑합니다 영적으로 입도 비뚤어집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인자야 가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먼저 보고 먹고 소화해서 그 다음에 전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멕시코 간 것도 자의로 간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여기서 엘에이(LA)에서 다운타운과 외국사람 위해서 다운타운 나가고 또 한국사람 위해 한국마켓 엘에이 뭐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한 4년을 하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선교 기도회를 하는데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몇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안수해서 보냈습시다. 마찬가지로 그 때 여섯 명이 기도하는데 멕시코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 주에 화요일이었는데 그 주 토요일에 가버렸어요 토요일 날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 만나 전도한 것이 14년 된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브라질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릴 도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브라질 갔죠 또 콜롬비아 선교사가 와 가지고 우릴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죠 또 멕시코 유카탄에서 누가 와 가지고 우릴 도와 달라고 한인들이 많이 있다고 한인들의 후예들이 10여 만 명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아 그리고 또 큐바 목사님을 만났는데 큐바 목사님이 또 우릴 도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한 거예요 우리 자의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선교하니까 우리도, 그게 아니예요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집에 가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한 말씀만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마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작했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지난번 에스겔서를 읽었지만 24장 16절 18절보면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때리고는 네게서 네 눈에 네 욕망을 제거 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울부짖는 것을 억제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비탄하지 말고 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기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위하여 비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눈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잔혹하신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더 잔혹합니다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죽인 인간들이 더 잔혹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잔혹하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독생자 죽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텐데 하나님한테 원망할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벌떡 일어나서 갔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본 선교사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내하고 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끌어 묻고 계속 전도하러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그 같은 성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 애깁니다 미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은 부자집이에요 미국 와서 공부 했죠 그런데 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공부한 책과 학위증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전도자가 되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맥

시코 가는 도밍가(Dominga)라는 중국 할머니가 있었지요 지금 거의 90이 다 됐어요 우리와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 80정도 될 되었을 때도 80이 훨씬이 넘었을 때도 그 때도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는가? 제가 얘기한 송(Sung)이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받았데요 오래전 한 50년 전에 구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사역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 그러기 때문에 저도 부름 받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해 다 버리면 현세에서는 핍박을 받고 100배로 받고 오는 세상 그 때는 오는 세상이 천년왕국인지 잘 몰랐어요 오는 세상 내세(來世)라고 그랬으니까 내세는 다 저 하늘을 얘기하죠 그러나 내세는 오는 세상이란 얘기에요 올 래 자에 세상 세잔데 그게 킹제임스성경에는 오는 세상으로 번역 했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 영생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 올 걸 얘기 했죠 참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죠 보면 볼수록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죠 에스겔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수건을 둘러메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죠 나를 따라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 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한 테잎을 옛날에 들어 봤는데요 그 분이 성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냥 가마니에 담아 가지고 끌어 묻으라고 죽으면 육신은 이거 완전히 시체지 다 떠났는데 뭘 그렇게 멋지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아 이 세상에 승들도 말이죠 장사지내지 말고 불에 태우라고 그러는데 장작더미에 태우라고 관도 짜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목사들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마태라는 사람이 있죠 마태 그 사람은 세리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 막 세금을 받고 있어요 일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하고 그냥 따라 갔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요 그런 자들을 불러 가지고 사역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베드로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그냥 따라

갔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쉬웠을 것 같아요? 그 먹고 사는 일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고기 안 잡으면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먹을지 몰라요 따라 오라면 따라 갔어요 따라가니까 먹고 사는 거 다 해결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난리가 났지요. 따라 가니까 따라 갈 때는 어떻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부모도 버리고 따라 갔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따라 갔잖아요 그러나 주님 따라 가니까 그 때 그 때 공급 했죠 그 때 그 때 공급해서 먹고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정말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다음에 바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다음에 바로 눈이 띄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릴 죽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는 사람인데 주님 만나니까 바로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요 6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 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고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네게 경청하였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보냈어요 그런데도 보냈어요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 갔을 때 말이 서투려도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러신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켓에서 하루 두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안 들습니까 우리 동족이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런데 마켓에 오는 다른 민족들이 주님을 믿더라구요 옛날 100여년 전에 캐나다 백인 여자 선교사가 평양 사거리에서 서 가지고 한국말 못 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포도청 대장이 가다가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자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작가 김 성일씨의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나는 죄인 잡으러 가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처음엔 그랬죠 웃기는 여자라고 말이지요 그 땐 얼굴이 하얀 백인 여자를 보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평양 한 거리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언어권에 가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멕시코가면 언어를 잘 몰라도 "띠에네 빼까도스 오 노? 토도스 빼까도레스" 당신들 다 죄



인입니다 그럴 때 녹아지는거예요 한국말 만 ~ 멋지게 하면 안 되요 너무나 말 잘 해도 안되요 틀리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고쳐줘요 저는 그래서 스페니시를 배웠어요 내가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같이 가는 크리스도목사를 보고 내 스페니시가 어때요? 그러면 어글리(ugly)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 하면 안 들어요 내가 얘기하면 들어요 희한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 안 들을꺼다 그 얘기는 다른 민족에게 가면 들을꺼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자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은 경청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음이라 하나님이 한 두 번 당했나요 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오죽했으면 뻔뻔하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당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 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 때문에 그런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또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히 2:14)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요일 3:8) 죄와 사망을 멸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셔도 절대로 포기 하지 않은거예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마귀를 무저갱속에 쳐 넣을 거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을 받을 지라고 마귀가 그들을 사용할 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 하실 때 그 때 완전히 마귀를 멸할 것을 이미 계획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도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늘들은 주 하나님 여호와의 것일 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호와증인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 만나면 쫓아 내려고만 그러지 그들을 전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들어오라고 그래요 나는 목사인데 성경을 가르쳐 줄테니 들어 오라고 그럼 도망 가요 시간 없다고 그렇게 되야지 무조건 쫓아내려고만, 어떤 목사님은 여호와증인만 평생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듣든지 그만 두든지 간에 계속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2장 5절에 이미 들었죠 우리, 그래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어차피 알게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들이 심판 받을 때에 아 그 때 선지자가 있었지 하나님이 말씀했지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최후 통촉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 포로 잡혀가서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이 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저도 한국 있었으면 예수 안 믿을 꺼니까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다 지나고 보면 여기 갖다 안 놓았으면 저도 목사 안 됐죠 저도 한국이란 나라 진짜 술집 많고 음식점 많고 거기 가면 여기 있다 간 사람이 거기 몇 개월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 보았습니다. 어떤 의사 집사가 있는데 그 분이 한국 가더니 완전히 변했더라고 폭탄주를 마신데요 집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죠 어느교회 안수집사님이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없더래요 요한계시록 씨디를 줬더니 그걸 듣고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한국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득차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복음전도 하라고 딱 내 보내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 능력이나 우리 재력이나 우리 용기 같은 것 절대 의존 안 해요 이상한 능력이 생겨요 야 그리고 일단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말이지요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 다운타운 무서운데 있잖아요 거기 옛날 같았으면 미국 처음 왔을 때 무서워 가지고 차타고 다니면서도 강도가 또 문 열지 않나 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락(lock)을 하고 다녔는데 내가 거기서 막 떠들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상해요 그건 내 힘이 아니 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 이에요 이 선지자도 그 이마를 이마를 아주 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강하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나가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육신적인 능력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도 꿈쩍 못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처음에 나 갔을 때 나 같은 죄

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영어로 부르면서 한국말로 부르면서 외치면서 나가죠

지저스 해븐 위다웃 지저스 헬 (Jesus heaven, without Jesus hell!)그러구 그 다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핏켓을 50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마이크로 선창하면 따라서 했어요 두 줄로 딱 서 가지고 그 복잡한데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나중에는 박수를 막 쳐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내리면 전도 할 장소에 내리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세 번 우리 한 번 하죠 주여를 세 번 하죠 거기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주여를 세 번 한 다음에 돌씩 짝을 지어 가지고 한 시간 딱 전도 하는데 300명 200명 그냥 길에서 울면서 주님을 영접 했어요 그거 끝나니까 멕시코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읽을 때 신나는게 뭔가하면 맞아 이거구나 이런 능력을 줬구나 지금도 똑 같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주십니다 목사님들 훈련시킬 때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요 막 회개 합니다 내가 목회 했지만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못 했습니다 이러구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90프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 합니까 평신도들이 하는데 와 가지고 듣고 다 깨져버리잖아요 어린아이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불러 내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민족들을 벌하실 때 이방 민족을 썼죠 도끼로 썼습니다 도끼로 하나님이 도끼로 썼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페르샤 메데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저 옛날 나치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벌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야 우리가 이들을 점령했다고 그럴 때 교만하니까 꺾어 버렸죠 도끼가 어떻게 자랑 합니까 도끼는 자랑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할 때 다 멸망 시켰죠 지금 그들 나라가 없잖아요

교만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제 뻔뻔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이 말씀하신다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그만 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렇죠 요즘도 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설교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가끔 한 구절씩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걸 경고해야 됩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는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여 좋아 할 것도 없구요 사람이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우리는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요 누가 말을 안 들어도 좋고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도 옛날 저기 가주마켓에서 전도하다 쫓겨 났죠 메니저가 신고해서 흑인 순경이 수갑을 딱 가지고 한 번 만 더 하면 채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발에 먼지를 다 떨고서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경고만 하면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우리 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주 설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외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이 내 안에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슬플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슬픈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린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이 안에 살아 계셨으니 모든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